

메르스 극복...광주·전남 휴가철 여행산업 활기

관광지 300만명 복귀...숙박업 등 매출 평년 수준 회복

야구장 연계 등 호남선 KTX 효과 극대화 전략 필요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내수를 살리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여행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지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KTX 열차이용객 수가 호남선(광주~전남 구간)의 경우 메르스 발생 직후인 6월 둘째 주 7일간 9만1487명을 기록, 10만 명 이하

로 줄었으나 6월 셋째 주 9만4046명으로 늘어난 뒤 6월 넷째 주 10만5723명, 7월 첫째 주 11만489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광주·전남이라는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들어 광주·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은 7월 현재까지 300만여명으로 지난해 총 방문객 200만여명 보다 100만여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숙박업과 요식업, 유통업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및 메르스 발생 전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수 지역 대표적인 물놀이 휴양시설인 아쿠아플라넷 입장객수를 보면 6월 셋째 주 7300여명으로 줄었으나 7월 첫째 주에는 1만2000여명에 근접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섰다.

여행업계에서는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많이 가라앉은데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내수집체를 우려해 휴가철 국내 여행을 장려하면서 6월 중순까지 잠잠했던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계의 회복세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여행상품 판매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G마켓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 여행상품 판매량이 메르스 여파가 극심했던 지난해 초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워터파크·스파 입장권 판매량이 6월 첫째 주보다 4배이상 급증했으며 숙박권 판매도 호조를 띠고 있다. 콘도·리조트와 펜션·캠핑 숙박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는 지자체와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으로 한나절 관광권 시대를 연 광주와 전남은 열차 승차권과 KIA 협경기 입장권을 결합한 '야구관광

KTX'를 비롯해 KTX와 전남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개통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모니타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북이 참여하는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전략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치밀한 전략 수립과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와 전남의 특성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관광객 유인 요소가 연중 이어지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당장 KTX 효과를 극대화하고 맛과 멋의 고장으로 특성을 살리는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7.89 (+14.98)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1)
- ▲ 코스닥 774.40 (+12.81) ▲ 환율 (USD) 1149.20원 (+5.60)



지난 15일 출범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출범

14개 단체...현안 공동 대응

광주·전남의 중소기업단체들이 모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출범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앞으

로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 과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회장엔 나기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이 선임됐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회원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제휴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업계 권익 대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1년 만에 또 노사 갈등

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 예고

勞 "기본급 8.3% 인상" 使 "업계 최고 대우" 맞서

금호타이어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사의 이견이 큰데다 노조가 쟁의행위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이어 노사갈등 양상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11차 본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해 협상 장기화를 예고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올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임금 하루 일급 970원 정액 인상,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에 연동한 정년 연장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본급 8.3% 정률 인상과 2014년 경영성과(영업익 2700억원) 성과급 배분, 1958년생 정년 연장, 기피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5월26일 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현

재까지 11차례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크다. 사측이 제시한 일급 정액 인상안과 노조의 기본급 정률 인상안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4일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성신청'을 하고 쟁의행위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평균임금은 현재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도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며 "기본급 8.3% 인상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임금인상은 회사 사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으로,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쟁의행위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교섭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휴가철 '물놀이 신발' 인기 장마와 무더위의 영향으로 시원하면서 방수 기능까지 갖춘 여름용 신발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3층에서는 오는 23일까지 '프리미엄 여름 슈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출산장려정책 우수기관 선정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제4회 인구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주관하는 출산장려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010년 광주·전남 기업 최초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유영택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출산장려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관계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권오준 포스코회장, 5대 경영 쇄신안 발표

임직원 소수 정예화

포스코가 최근 경영환경 악화과 검찰 수사에 따른 국민 신뢰상실로 창사 이래 최대 경영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종합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지난 5월 비상경영쇄신위원회 발족 이후 내부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한 5대 경영쇄신안을 직접 설명했다.

권회장은 쇄신안 발표에 앞서 "최근 회사를 둘러싸고 국민과 투자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권회장이 직접 발표한 5대 경영쇄신안은 ▲사업포트폴리오의 내실있는 재편성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구현 ▲거래관행의 투명하고 시장지향적 개선 ▲윤리경영을 회사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정착 등이다.

권회장은 시종일관 비장한 표정이었



으며, "과거의 자만과 안이함을 버리고 창업하는 자세로 돌아가 스스로 재조직하고 변화시켜 창립 50주년을 맞는 2018년까지는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경영쇄신안 발표를 마쳤다.

한편, 포스코는 5대 경영쇄신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전 계열사의 임원진을 소수 정예화해 조직효율을 높이는 한편, 경영정상화시까지 임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광영=박영진기자 pyj40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2) 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